

▶ **한옥마을 상설공연** 6개월간의 대장정 마무리... 인기 요인은?

창극 · 전통체험 · 음식, 1장의 티켓으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은 6개월 동안 상설로 진행한 2017 한옥마을 상설공연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와 '한옥마을 놀이패, 놀부가 떴다!'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이 주관한 '천하맹인'은 지난 5월 27일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펼쳐졌다.

전주마당창극은 올해 33회 공연에 총 9,295명의 관객이 관람했으며, 이 중 유료관람객 비율은 81%에 달했다. 객석점유율(300석 기준)은 81.2%를 기록했다.

마당창극 레퍼토리 중 두 번째 작품인 '천하맹인'은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맹인지치' 대목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작품. 시대적 코드를 담아낸 해학적 요소와 재미, 감동을 더해 짧은 감각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였다. 한옥과 판소리 등 전주의 우수한 전통자원을 활용하고, 1장의 티켓으로 마

▶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심청가 중 '황성맹인지치' 대목 중심으로 재해석
 시대적 코드 담아내
 젊은 감각 돋보여



당창극·전통체험·잔치음식 등 세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는 한옥마을 내에서 진행했던 체험 프로그램을 마당창극, 잔치음식과 함께 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관객들의 편의성과 집중도를 높여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잔치음식은 잔치 콘셉트에 맞추어 국수, 떡, 수육, 흥어무침, 전주막걸리 등 잔치 날에 먹는 음식들로 구성했다.

또한 입장권은 공연관람권과 패키지 티켓 등 2종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선보인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의 기획시리즈 '놀부'는 올해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으로 제작된 초연작.

5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8시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되었으며, 37회 공연에 총 4,848명이 공연장을 찾았다. 객석점유율(136석 기준)은 83.2%이며, 유료관람객 비율도 80.6%에 이르렀다.

작품은 놀부전을 소재로 비보이·사물놀이·전통무용 등을 결합하였으며,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레이션이 돋보이는 유쾌한 놀이극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비보이 그룹 소울헌터즈·금파무용단·임실필봉놀이 등 전주의 대표적인 공연단체 및 소리꾼과 연극배우들의 활약은 공연의 풍성한 볼거리와 색다른 재미를 더해주었다.

또 '놀부'는 매회 공연 시작 전 배우들이 한옥마을 길놀이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한국차문화협회전북지부와 연계하여 준비한 전통 차와 다과로 관객들이 한옥의 정취와 함께 전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정해은 기자



▶ 놀부가 떴다
 놀부전 소재 전통무용 결합
 전통·현대의 콜라보로
 관객들의 호응 얻어
 시작전 배우들의 길놀이 통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가야금과 대금의 만남

조재경·은현주 듀오 연주회
오늘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우진문화재단의 '2017우리소리 우리가락'의 마지막 무대는 '조재경·은현주 듀오 연주회'가 장식한다.

31일 오후 7시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가야금 연주자 은현주와 대금 연주자 조재경은 우석대학교 동문이자 남원시립국악단 동료로 남다른 연주 호흡을 기대하게 한다.

두 연주자는 "나이, 음악적 배경과 생각도 다른 우리였지만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은 다른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는 든든한 음악적 동반자가 되었다"고 했다.

연주곡으로는 서궁철류 가야금산조, 이생강류 대금산조, 푸리, 소금과 25현 가야금을 위



한 밤은 잠들지 않는다, 25현 가야금 협주곡 이리랑의 꿈, 대금 협주곡 타래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만원. /정해은 기자

전북위상작가상에 서양화가 윤철규씨

서양화가 윤철규(50·사진) 씨가 제21회 전북 위상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작가는 원광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정이회, 햇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문화관광재단 해외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프랑스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으며,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에도 초대되어 작품 활동을 펼쳤다.

위상작가상 심사위원단은 윤철규 작가에 대해 "일상의 모습과 세월의 흔적들을 조근조근 화폭에 담은 작가"라고 소개하며, "그의 그림에는 소중한 삶이 있고,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이 있다"고 평했다.

작품 전시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교동아트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도내 독립영화인들의 큰잔치

전북독립영화제, 내달 2일부터 5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서 개최

독립영화인들의 축제, 2017전북독립영화제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과 CGV 전주고사점, 은고를 영화사랑방에서 열린다.

올해 전북독립영화제는 독립영화, 특히 단편영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불러 모으고자 전주영화제작소 1층 전시실에 '은고를 영화사랑방'을 만들어 우수단편영화를 특별 상영한다.

은고를 영화사랑방은 4일 토요일을 제외한 3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며, 전북독립영화제 수상작과 화제작 총 6편의 작품을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전북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강지이 감독의 '소나무(2010)', 이형석 감독의 '소년과 양(2013)'과 2016년 관객상 수상작인 배세웅 감독



의 '두만강 저 너머(2016)'를 비롯해 지역의 대표 감독들이 최진영 감독의 '반차(2016)', 조미혜 감독의 '그녀의 애인(2014)', 김진아 감독의 '숨바꼭질(2016)'이 상영된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런던 국제영화제 작품상을 비롯한 다수의 영화제에 수상경력이 있는 작품"이라며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은고를 영화사랑방 특별 무료 상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www.jf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제3회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7. 11. 3. ~ 5.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Organic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 TEL: 063)320-2841~2